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 조

발행일 2011년 1월 7일 (금)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1. 노아의 홍수 (41) 지층의 형성 - 이재만 2쪽
2. Victor's Bible Journey (20) 요셉이 노예로 팔리다 - 이종현 역 4쪽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6)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 김무현 저 7쪽
4. 새로 바라본 그랜드캐니언 (24)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역 11쪽

인 사 말



주님의 축복과 도우심 가운데 어느덧 2011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새해에는 창조과학 전시관을 찾는 발길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북적거리는 관람객들의 활기찬 모습,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빛내며 창조과학실
험카페에 참여하는 많은 아이들의 환한 미소,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이
창조과학 대구전시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그려 봅니다.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올해는 그 결
실을 거두어들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각 가정과 이 땅 위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이 묘 훈 올림 -

1. 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공개세미나(매월 첫째 목요일)와 정기스터디모임(매월 셋째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공개세미나와 정기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0일(목) 정기모임은 없습니다.

강사: 신동수 (계명대 화학공학 명예교수)

일시: 2011년 2월 10일(목) 오후 7시

장소: 대구전시관

내용: 창세기 1장과 창조의 증거

문의: ☎ 070-4095-6420





지층의 형성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창 7:20)

Fifteen cubits upward did the waters prevail; and the mountains were covered. - Genesis 7:20, KJV

The waters rose and covered the mountains to a depth of more than twenty feet. - Genesis 7:20, NIV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열다섯 자나 더 불어났다. - 창 7:20, 새번역



사진. 해남 우항리의 퇴적층

육지 표면의 약 80%는 퇴적암(sedimentary rocks)으로 덮여있다. 그 퇴적암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지층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마치 시루떡처럼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랜드캐년을 가보아도 넓고 광활한 지역에 지층이 펼쳐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지층들은 과연 무엇을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런 장관을 남겨놓았을까?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이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 실험을 하면 지층들은 언제나 짧은 시간 동안 빠른 퇴적과 빠른 물의 속도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실제로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땅에 떨어져 쌓일 경우도 바로 수평의 지층이 만들어진다. 화산은 대표적으로 빠른 퇴적환경 중에 하나이다. 빈 비커나 물이 찬 비커에 흙을 수직으로 낙하시킬 경우도 바로 지층이 만들어진다. 이는 흙이 떨어지는 동안 그 입자들이 공기나 물의 저항 때문에 크기나 비중에 따라 떨어지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직으로 흙을 낙하시켰을 때뿐 아니라, 수평으로 흙이 이동할 때에도 지층이 형성된다는 실험이 실시되었다. 바로 1993년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실시된 실험인데 기존 지질학에 중요한 기념비적 성과였다(P Julien, Experiments on stratification of heterogeneous sand mixtures). 커다란 물탱크에 물과 모래를 넣고 수평의 수로를 따라 빠르게 흘러보냈다. 이러한 물과 흙이 범벅이 된 것을 혼탁류(또는 저탁류, turbidite)라고 부르는데 이 혼탁류를 빠르게 흘러보낸 것이다. 그러자 빠르게 흐르는 혼탁류의 모래가 수로 바닥에서부터 그것과 평행하게 수평으로 지층을 만들고 있었다(참조: 지층형성 실험, 퇴적층의 엽층에 관한 실험)! 이 실험이 기존의 막연한 사고에 충격을 준 것은 지층이 아래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혼탁류가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지층도 수평으로 만들어지는데, 옆으로 지층이 확장되는 것과 위로 지층이 쌓이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직으로 흙들이 공기나 물속에서 낙하할 때보다 혼탁류가 수평으로 이동될 때 지층이 더 잘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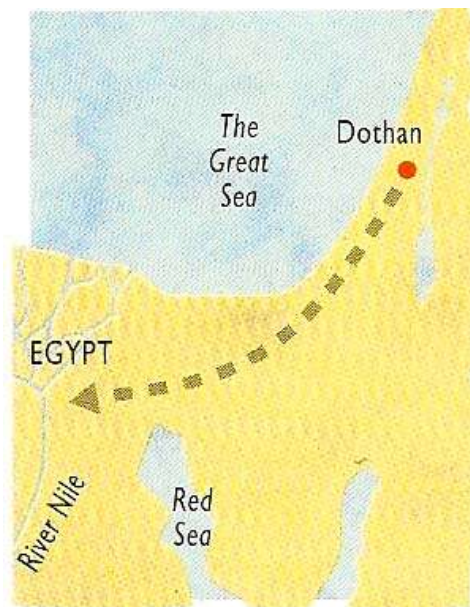
퇴적암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인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작은 입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낱 상상에 의한 산물인 것이다. 과학적인 실험을 할 때면 지층은 언제나 “시간(Time)”이 아니라 이를 만들 만한 “사건(Event)”에 의해 형성됨을 지지한다.

지구상에 퇴적층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 넓이와 두께는 오늘날의 화산폭발로는 불가능하며, 물론 오늘날의 홍수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너무나 넓고 두꺼운 것들이다. 이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바로 엄청난 흙과 이것들을 운반할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것이다.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린”(7:11) 격변적 사건은 이 지층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cubit)이 오르매 산들이 덮이는”(창 7:20) 모습을 그리며 지구 전체를 파괴시키고 덮었던 격변적인 홍수의 물이 점점 증가하며 지층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려볼 수 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다

(Joseph is sold as a slave

- Genesis 37:12-36)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가나안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었는데, 지금 그녀는 그녀의 두 번째 아들 베나민을 낳다가 죽었다. 그때 야곱은 자기의 어릴 적 고향 근처에 정착하여, 목자로써의 삶을 살았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가 한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 모두에게 분명해졌다. 그 아들은 요셉이었다. 그것을 시기하는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후에 족장에게 그의 물건들을 가져왔다.

구덩이 혹은 물웅덩이

요셉이 도단 근처의 들에서 자기 형제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갑자기 그들의 질투의 희생이 되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 및 아름다운 채색옷과 더불어 흔하지 않은 꿈 등이 그의 형제들의 요셉에 대한 강렬한 증오심에 불을 질렀다. 그들이 들을 가로질러 오는 요셉을 보았을 때, 그들은 즉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장자인 르우벤(Reuben)이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를 어찌할지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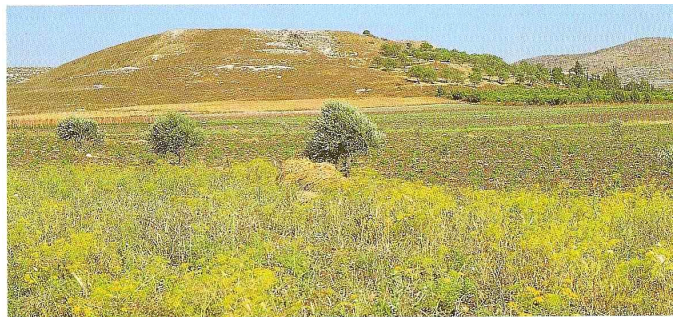
그 구덩이는 아마 암석 혹은 단단한 점토에 파놓은 깊은 구멍으로서 물이 셀 작은 구멍이 없는 물웅덩이였을 것이다. 물웅덩이는 주로 빗물을 모아서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나중에 양떼에게 물을 먹이거나 이동하는 대상의 갈증을 가시게 하는 데 이용되었다.

또한 물웅덩이는 물을 담고 있지 않을 때 감옥으로 이용되었다. 입구는 매우 작아서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놓을 수 있으며, 바닥은 훨씬 넓었다. 과일 배같이 생긴 이런 모양 때문에 한번 물웅덩이에 빠지면 도망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수세기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 안마당에 파 놓은 이런 물웅덩이에 던져졌었다(예레미야 38:6).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웅덩이에 집어 넣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 예레미야 38:6, 새번역

도단

요셉은 헤브론 근처에 있는 집을 떠나 그의 형제들을 찾으러 갔다. 그는 먼저 집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세겜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도단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았다. 도단은 거기서 또 다시 북쪽으로 약 30km를 가야했다.



고대에 도단이 있던 언덕

도단은 목초지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목자들이 예루살렘이나 기타 지역에서 자기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도단까지 온다. 요셉의 시대에, 도단은 북쪽의 시리아와 남쪽의 이집트 왕국을 연결하는 주요한 교역길 상에 위치해 있었다. 이 길은 아마도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이 도단을 통과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사서 지나갔던 길이었을 것이다.

대상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았는데, 이것은 숫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가격에 불과했다.

요셉은 갑자기 대상의 일원이 되어서 이집트로의 긴 여행을 하게 되었다. 성경 시대에 대상이란 공통의 길을 가거나 혹은 공통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했는데, 특히 밤에 쉬기 위해 멈추었을 때 그렇다. 길에는 여행자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었으며, 강도와 야수들이 빈번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룹을 지어 여행했다. 여행자들 그룹이 더 많을수록, 도둑이나 침입자 떼거리들에게 공격받을 기회가 더 적었다.

대상이 길을 따라 진행하는 도중에, 일부가 그룹에 끼어들기도 하고 일부는 떠나기도 하면서 그들 여행의 목적지에 이른다. 어떤 대상은 3,000명이나 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보다 훨씬 적다. 가난한 사람은 걸어가거나 당나귀를 탔지만 부자는 낙타를 탔다. 길이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대상의 뒷부분에서 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은 전체 여행 동안 먼지를 들이켜야 했다.

해질녘에 대상은 어두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책을 제공했다. 때로 그들은 길가의 여관에 머물렀는데, 보통 그것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비어있는 건물이거나 혹은 벽이 있는 마당으로 사람과 동물을 강도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었다.

대상이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갈 때면 사람들을 들뜨게 했다. 종종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으며, 외국 땅에서 매혹적인 물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었다.



오늘날의 낙타 대상.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간 대상을 생각나게 한다.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노예는 보통 절망으로 가득 찬 희망 없는 삶을 살았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쉬는 날” 혹은 휴가가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남은 삶이 끝없는 잡일로 가득 찰 것이며, 그것들은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요셉은 행운의 노예였다. 그가 지능이 있고 선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집사로 선발되었다. 그의 임무는 부유한 가계의 살림을 감독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노예들이 동 광산에서 일을 해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갑작스런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다. 어떤 노예들은 이집트 군함에서 노 젓는 일을 했다. 어떤 여자들은 창녀가 되어야만 했다. 다른 노예들은 벽돌을 만들거나 금속 일을 해야 했다.

참조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1) 성경적 세계관 정립의 방해요소 부수기

폴 발레리(Paul Valéry)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Il faut vivre comme on pense, sans quoi l'on finira par penser comme on a vécu).”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즉,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지 않으면 세속적 세계관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One must live the way one thinks or end up thinking the way one has lived. - Paul Bourget*

나의 매일 매일의 삶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 두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예: 술, TV, Internet 등)

그것들이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그것들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더 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삶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나누고 결단하여 봅시다.

2)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DEW: Disciples with Evangelical Worldview)

한국에 크리스천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세계관 및 삶의 구체적인 구현을 위해 실천하며 섬기고자하는 성경적 세계관 모임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DEW(Disciples with Evangelical Worldview)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Answers In Genesis (www.answersingenesis.org), Focus on the Family (www.family.org), Discovery Institute (www.discovery.org; www.uleaders.com) 등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 있음) www.dew21.org 또는 www.view.edu를 방문하셔서 어떠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3) 경배, 사랑, 사용의 대상?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며 물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개인의 삶에 잘못 적용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나 돈을 경배하거나 사랑하면서 삽니다. 바로 배금주의나 황금만능주의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디모데전서 6:10)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sorts of evil, and some by longing for it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 1 Timothy 6:10, NASB

명예나 권세를 위하여 일생동안 영적인 삶과는 무관한 채로 정신 없이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15-17)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경배하거나 사용하면서 삽니다. 교황/성직자나 절대적 권력자나 재벌총수 등을 숭배하거나 반대로 주위의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으면서 평소에 교회도 안 다니다가 자녀들의 입학시험이 가까워지면 백일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인의 치부와 영광을 거둬들이는 이단교주나 샅군 목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물질을 사용의 대상으로 옳게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21)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같이 물질적으로 부요치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부는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의 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주의 나라와 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바르게 쓰여질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움켜쥐고 있을 때 오히려 영적인 울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풍부하게 (돈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1-33)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서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19-21)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 Matthew 6:19-21, NASB

하나님께서 부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라고 허용하십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고통도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C.S. Lewis)는 “**고통이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 이라 하였습니다. 혹시, 남보다 더욱 쓰라린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무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허락하신 것일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의 위로는 단지 피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웠던 경험들 하나 하나가 나중에 비슷한 일로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고 격려하며 복음을 강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4)

[적용] 오늘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남보다 풍부하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5:58)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17)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eating and drinking,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 Romans 14:17, NASB

4) 성경적 세계관대로 살아가기

김동호 목사의 설교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는 대학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세워진 한동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교정은 주위 시설이 미흡한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전교생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재정의 부족으로, 계속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할 만한 기숙사 증축이 어려워지자, 입학생들에게 그를 위한 100만원씩의 자발적 기탁금(voluntary donation)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기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 관한 한 공평한 권리와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수용량에 비해 계속 사생이 늘어나는 바람에 결국 그 중 일부는 할 수 없이 20분이나 떨어진 곳에서 하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누가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숙사를 떠나야 할 것인가를 놓고 교원 및 학생들이 같이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라면 100만원씩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우리들은 기부금을 냈으니까 여기 남을 권리가 있고, 기부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행하려고 노력하던 학생들이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오히려 못 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 것임으로 퇴사하여 하숙을 하자”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한국에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극단적 표현들로 매우 어둡고 혼탁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 사회에서 이와 같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고, 세속적 세계관에 젖어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적용] 오늘날 나의 가정, 교회, 직장, 학교 등에서 위의 예와 비슷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성경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참조**

그랜드캐니언 새로 바라보기

그랜드캐니언의 동식물

(Grand Canyon - The Plants and Animals)

마음의 눈으로 그랜드캐니언의 놀라운 장관을 즐기기 위해서는 가장자리의 정선된 장소나, 오솔길을 따라, 강둑이나, 혹은 하나님의 고요한 ‘독립기념일(Fourth of July)’ 축하행사를 포착하기 위해서 잠깐 쉴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라도, 조용히 서서 그곳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웅장함은 그 순간과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캐니언의 전망대(viewpoint)에 도착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들지 않는 곳은 거의 없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장관을 직접 되새겨보노라면 그 보상은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주로 폰테로사 소나무 공원지 사이의 남쪽 가장자리에 도착합니다. 높이 치솟은 소나무와 참나무(Gambel oak), 절벽을 장식하는 장미와 양치류 관목(fernbush) 그리고 산쭉(sagebrush) 사이를 걷는 것은 유쾌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의 선선함을 느끼면서 흙이나 낙엽 쌓인 길을 걸을 때, 어치(Steller's jay)와 다람쥐(Abert's squirrels)가 위에서 재잘거립니다.

가벼운 산행은 추억을 가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장자리를 따라서 걷든지 혹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든지 간에, 걸으면서 자주 다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바위를 넘어 기어올라야만 합니다. 공원엔 두 개의 주된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수평적으로는 다 자라거나 어린 숲이 있고, 수직적으로는 층화된(stratified) 식물 군집이 있습니다. 남쪽 가장자리는 해발고도가 2,000미터(7,000피트)를 넘기 때문에, 성장이 끝난 삼림을 유지하는 시원하고 습한 기후입니다. 하지만, 일단 산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워지면서 건조해지는 네 영역을 연속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위풍당당한 폰테로사 소나무를 떠나면, 대개 피논 소나무(pinyon pine)와 유타 향나무(Utah juniper)로 이루어져 있는 약 600미터(2,000피트) 두께의 다음 층이 나타납니다. 피논 소나무는 짧고 술이 많은 침엽과 맛있는 솔방울 열매가 달린 작은 나무입니다. 향나무는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것의 껍질에 의존합니다. 이 군집 내에서, (미국 남서부산(産)의 대형) 바위 다람쥐(rock squirrels)와 물사슴(mule deer-귀가 길고 꼬리 끝이 검은 북미산 사슴)이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커다란 산쭉, 래빗브러쉬(rabbitbrush-사막의 국화과 식물), 뱀꼬리는 캐니언의 최상부 바위층 위에 깔려서 꽤 뾰족한 낮은 형태의 삼림(low-form forest)을 이룹니다. 레드월 절벽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광범위한 검은색의 덤불관목의 어린 삼림이 넓은 대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간간이 실난초(narrowleaf yucca), 선인장(beavertail and hedgehog cactus), 모르몬 차(Mormon tea)가 산재해 있습니다.

샘은 절벽에서 나와 작은 지류로 흘러들어 바위를 가로질러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는 강으로 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 강기슭 사초(riparian sedges), 갈대, 조류(algae), 잔디, 막대한 미루나무(cottonwood trees)를 볼 수 있습니다. 봄엔 서양박태기나무(western redbud tree)의 엄청난 꽃다발 속에서 눈부신 색깔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곳을 따라서 검은뺨벌새(black-chinned hummingbird), 피꼬리(hooded oriole), 혹은 심지어 멸종위기에 처한 버들솔딱새(willow flycatcher)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성기고 가시투성이인 사막관목 군집이 안쪽 골짜기(gorge)의 단구(terraces)와 테일러스(talus-부스러져 떨어진 산사면의 돌더미) 사면을 덮고 있습니다. 메스키트(mesquite-콩과 식물의 관목), 솔트부쉬(four-wing saltbush), 오코틸로, 용설란 등이 셰일질의 흙(shaley debris)에 삽니다. 이렇게 매우 건조한 지대는 뜻밖의 차고, 빠르게 흐르는 콜로라도 강과 접해있습니다.

수로에는 물이 풍부하고 급류를 이루고 있으나 수면이 물가에 닿는 게 짧아서 단지 하안선(shoreline)으로부터 짧은 거리에까지만 미칩니다. 그곳에, 위성류나무(tamarisk tree)가 꽃을 피워 숨 같은 씨앗의 물결을 남동쪽으로 부는 바람에 태워 상류로 보냅니다. 강가를 따라 버드나무(coyote willow), 잡초(arrow weed), 양골담초(desert broom)가 무성합니다.

모든 군집에서, 일년생 혹은 다년생 꽃들이 간간이 화려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달맞이꽃(evening primrose)은 환영의 선물이고, 구불구불한 줄기에 달려있는 커다란 나팔모양의 꽃이 있는 흰독말풀(sacred datura)은 잠시밖에 볼 수 없는(short-lived) 뜻밖의 선물입니다. 들국화(asters), 개망초(fleabane), 참매발톱꽃(golden columbine)이 갑자기 나타나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의 진홍색 원숭이꽃(cardinal monkey-flower)도 캐니언의 암벽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는 곳에 보입니다. 펜스테몬(penstemon)*, 양홍색의 영정귀, 미국앵초(shooting stars), 그리고 일련의 선인장 모두가 자기 자리와 개화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니언에서, 암석은 시야를 지배하나 식물은 그 혹독함을 완화시킵니다. 둘 다 격변적(cataclysmic) 사건들의 유물입니다. 그러한 사건들 이래로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계절에 따라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과정이 영적인 눈에 무한한 기념물을 제공합니다.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